

[종합]

전남 해양관광 본궤도 오른다

리조트·크루즈항·뉴시공원 등 인프라 구축 마무리 공사 순조

전남 지역이 보유한 천혜의 관광 자원인 다도해와 섬을 축으로 한 각종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이 올 연말과 내년 상반기 완공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졸잡아 30여개에 달하는 개발사업이 완료될 경우 전남의 해양관광의 메카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전남 전역에서 해양 리조트 10개소(1조5

천799억원)를 비롯해 마리아 등 해양관광기반시설10개소(510억원), 어촌·어항 관광단지 조성 2곳(110억원), 크루즈항 개발 6곳(1천640억원) 등이 추진 중이다.

50피트 요트 30척이 계류할 수 있는 목포항 마리아는 9월까지 해상계류시설을 완료하고 내년 2월 클럽하우스공사를 끝낼 계획이며, 함평항 마리아 역시 내년 9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한창이다.

또 여수와 완도항의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과 해양종합공원조성사업도 올 하반기에 모두 마무리되며 장흥 해양뉴시공원은 다음달에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문을 열 예정이다.

해양리조트는 지금까지 10개 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해 무안과 완도 등 2개 지구가 9월에 착공되고 해남지구는 연말까지 착공한다.

강진 마량, 신안 방축 마을의 어

촌·어항 관광단지 조성사업도 2010년 완공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크루즈항 전용부두의 경우 여수항은 지난 6월 완공했으며 목포항과 거문도·흑산도·완도 팽목항 등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건설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 중이다.

김갑섭 전남도 해양수산환경국장 겸 "기반시설 사업들이 모두 완료되면 전남의 해양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의회, 노인 건강타운 공사현장 점검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재선) 소속 의원들은 3일 제 173회 임시회 기간 중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및 중심사 자연환경복원사업 현장을 방문, 공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국가산단 부지 광주 광산 덕림·삼계동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2011년 8월까지

광주시는 3일 "광주 광산구와 함평군 월야면 일대가 광주·전남 공동국가산단부지로 확정됨에 따라 광산구 덕림동과 삼계동 5.8km를 9월 1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2008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다.

시는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홈페이지 및 시·구보 등에 공고해 15

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에 지정된 허가구역 안에서도 도시 주거지역 180㎡ 이하, 녹지지역 100㎡ 이하, 비도시지역 농지 500㎡ 이하, 임야 1천㎡ 이하 등 일정 면적 이하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투기성 행여부 등을 조사해 허가구역과 기간을 신중적으로 운영해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을 펴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환율 또 ↑ ... 1,148.50원

3년 11개월만에 최고 코스피 15.79P 상승

